호남예술제 출신 강은혜 이스탄불 발레콩쿠르 '우승'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발레리나 강은혜(22·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4년)씨가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강씨는 지난 6월말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4회 이스탄불 발레 국제 콩쿠르 & 페스티발'에서 시니어 여자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 미국 등 12개국 무용수들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고, 강씨는 남녀 각각 11명이 겨루는 파이널 경합에서 1위를 차지했다.

강씨는 광주 출신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발레를 시작, 중학교 시절 3년 연속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동아여고 3학년이던 지난 2010년 호남예술제 최고상과 국회의장상을 함께 수상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콩쿠르에서 4차례 연속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으며 동아콩쿠르에서 은상을 받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정택 작 '단물고개'

그림책의 무한 매력

광주시립미술관 10월19일까지 그림책 전시회

아이들은 그림책을 보면서 때로는 책 속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한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그림책의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어린이책 전문 출판사 ㈜비룡소과 함께 그림책 전시회를 연다.

10월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알록달록 그림책 놀이터'로 이수지, 이영경, 오정택, 센우, 물들숲 그림책 팀의 그림책 원화 5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 기획은 패션, 북 디자인 등 분야에서 아트 디렉터로 활약 중인 디자이너 김도형씨가 맡았다.

뉴욕 타임스 우수 그림책에 2회 선정된 이수지씨의 경계 그림책 3부작 '거울속으로' '파도야 놀자' '그림자놀이'와 국제 노마 콩쿠르 수상 작가 오정택씨의 전래동화 '단물 고개'의 그림이 다색 판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그림책 작은집'에서 입체 인형 만들기, 미니 액자 만들기 등 체험을 할 수 있고, 부대행사로 이태수씨의 '무당벌레 손수건 만들기'(8월14일), 이영경씨의 '아씨방 일곱 동무와 나의 연필꽂이 만들기'(8월28일) 행사가 열린다. 문의 062-613-7100.

/김경인기자 kki@

'담 넘는 신사'

커피향 그윽한 갤러리 기분 좋은 조각 산책

조의현 조선대 교수 사재 들여 2012년 개관
아트숍·스튜디오·카페 갖춘 '복합문화공간'
야외 조각 상설 전시…월말까지 박형규 개인전

문화가 흐르는 공간 8 핵순 | 소아르

'천국 쇼핑'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소아르'는 갤러리와 조각공원, 커피숍이 함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예술을 탐구하는 공간(Space Of Art Research)이라는 뜻을 담아 영문 첫 자를 골라 지은 'SOAR(소아르)'는 이미 광주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문화공간이다.

광주에서 화순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너릿재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우측편에 있는 이곳은 조각공원이자 갤러리, 아트숍, 스튜디오, 커피숍까지 갖추고 있다. 조의현 조선대 미술대학 교수가 사재를 들여 5년동안의 준비 끝에 지난 2012년 개관했다.

조 대표는 이곳을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표현한다.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저 역시 조각을 전공한 미술인이지만, 저 스스로도 전시만 보러가는 공간이면 찾지 않아요. 전시공간이 메인이어도 좋고, 차를 마시러 왔다가 가볍게 둘러보는 공간이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으면 만족합니다."

'소아르'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건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하늘을 향해 나 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천국 쇼핑' 조각상. '소아르'의 상징이기도 한 이 작품은 10m 높이의 돌기둥 위에 설치돼 있어 멀리서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방문객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작품은 '담 넘는 신사'다. 빨간 넥타이에 중절모를 쓴, 잘 차려입은 한 신사가 담을 넘는 모습은 인간의 양면성을 표현했다.

20여점에 달하는 야외 조각물은 주로 인물을 이용해 표현한 작품들로 조 대표가 직접 만들었다. 자칫 칙칙할 수 있는 컬러의 브론즈(청동)에 빨강, 초록, 노랑색으로 포인트를 준 게 특징이다.

돌길을 지나 왼편으로 첫 번째 보이는 건물이 전시동이다. 조 대표의 조각품들과 직접 구입한 조각들이 전시된 조각상설전시장이 있고 바로 옆이 갤러리다.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활용했던 갤러리는 오픈 초기 1년동안 단체전을 포함해 120여명의 작가들이 이곳에서 전시를 했다.

현재는 컨셉트를 바꿔 기성 작가들의 개인전을 열고 있다. 7월말까지는 정크아트 작가 박형규의 개인전이 진행된다. 전자제품 부품에서 나온 폐품을 이용해 인체 형태로 재구성한 작품 20여점이 전시돼 있다.

갤러리 1층은 아트숍이다. 주로 북유럽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구해와 판매한다. 여러 가지 소품부터 액세서리, 생활용품 등 500여가지의 아트상품들이 진열돼 있어 구경하기에도 좋다.

주차장 오른편에 위치한 커피숍은 건물 형태를 따 'Box Coffee'란 이름을 붙였다. 건물이 독특하다. 나무터널을 지나 들어가면 테이블이 놓여 있는데 주문하는 곳은 보이지 않는다. 계단을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또 다른 공간에 들어선 듯 탁 트인 통 유리창 밖으로 야외 테라스가 반긴다. 커피숍 곳곳에 설치된 조각품들도 반갑다. 차 한잔을 마시며 야외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자연과 동화되는 느낌이다.

갤러리와 커피숍 등 모든 건물이 비슷한 박스 형태를 띠고 있다. 조 대표가 선호하는 건축 형태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 진 작품이며, 절제된 창을 유지해 호기심을 갖게끔 했다.

건물 곳곳이 나름의 멋을 가지고 있지만 공원 모습을 갖춘 야외는 방문객들이 즐겨찾는 이유 중 하나다. 직원들과 함께 하나씩 심었다는 장미공원과 나무로 멋을 낸 모던한 스타일의 벤치, 건물마다 이어져 있는 돌길들이 카메라를 들지 않을 수 없게 유혹한다.

'소아르'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관람객을 맞는다. 갤러리는 오후 7시까지, 커피숍은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중 무휴지만 갤러리는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홈페이지 (http : //soar.myhomep.kr), 문의 061-371-858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